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6. 1 | No.196



대외 여건 동향

세계 경제 | 국내외 금융

국내 경제·산업 동향

국내 경기 | 소비·고용 | 투자 | 산업생산 | 물가 | 수출입

주요 산업별 동향

자동차 | 조선 | 일반기계 | 철강 | 정유 | 섬유 |
가전 | 무선통신기기 | 반도체 | 디스플레이

이슈 포커스

조선산업 수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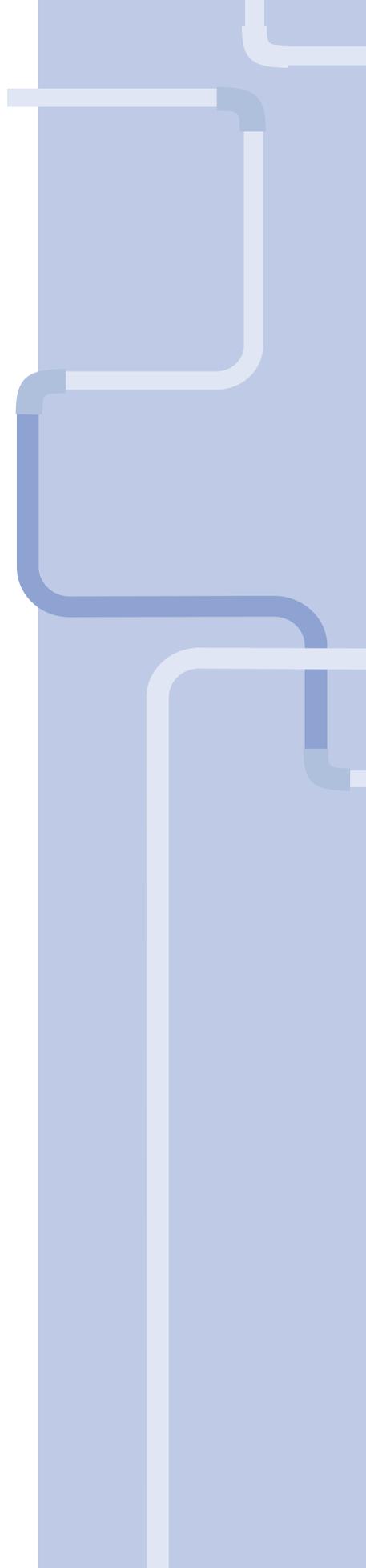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6. 1 | No. 196

차 례

1. 대외 여건 동향	5
(1) 세계 경제	5
(2) 국내외 금융	9
2. 국내 경제·산업 동향	15
(1) 국내 경기	15
(2) 소비·고용	20
(3) 투자	22
(4) 산업생산	25
(5) 물가	27
(6) 수출입	29
3. 주요 산업별 동향	35
(1) 자동차	35
(2) 조선	36
(3) 일반기계	38
(4) 철강	39
(5) 정유	41
(6) 석유	43
(7) 가전	44

(8) 무선통신기기	46
(9) 반도체	48
(10) 디스플레이	49
4. 이슈 포커스	51
(1) 조선산업 수주 분석	51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6. 1 | No.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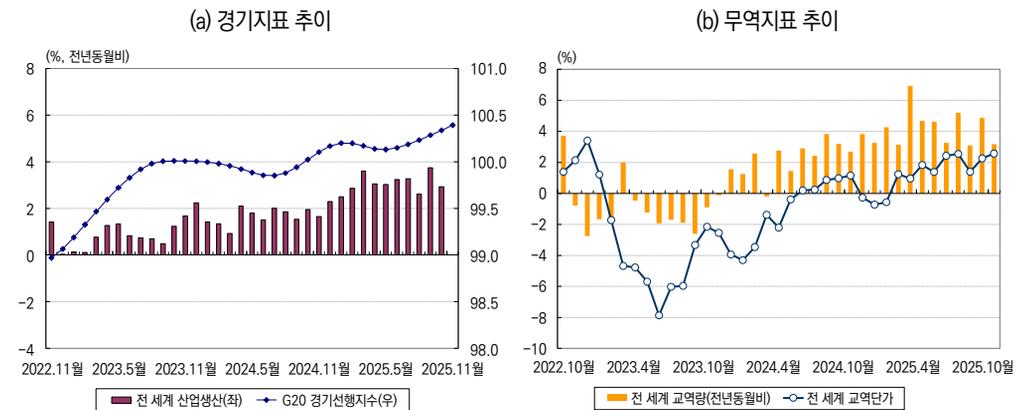
발행인 권남훈
편집인 김천곤
발행일 2026년 1월 20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146
인쇄처 (주)프리비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 지난해 11월 세계 경제, 산업생산과 교역량 증가세 지속
- (세계 경제) 세계 실물경기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선형지수가 지난해 하반기에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 실물지표가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 유지
 - 전 세계 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선진권에서 전년동월비 2.1%, 신흥권이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3%에 가까운 증가율(2.9%) 기록

세계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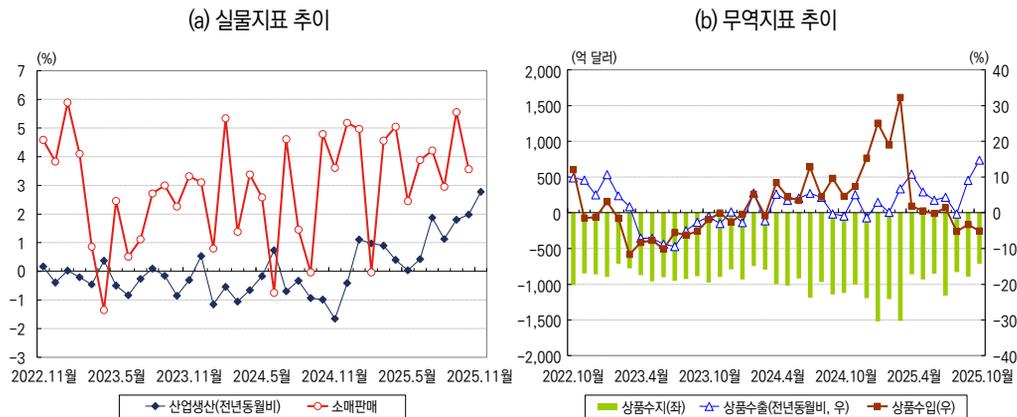


자료: OECD, CPB.

자료: CPB.

- 전 세계 교역량은 지난해 3월에 일시적으로 높은 증가율(6.9%)을 기록한 이후에, 증가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11월 현재 전년동월비 3%대 이상의 증가율 유지
- 전 세계 교역단가도 지난해 1월을 제외하고는 7월까지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플러스(+) 부호를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이 이어지는 양상
- **(미국 경제)** 지난해 10~11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전월비 기준 다소 미약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무역수지는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 등으로 적자 규모가 축소
 -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전기비 3.5%)와 투자(5.4%)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출이 상당폭 확대(8.8%)됨에 따라 전기비 4.3%(전년동기비 2.3%) 기록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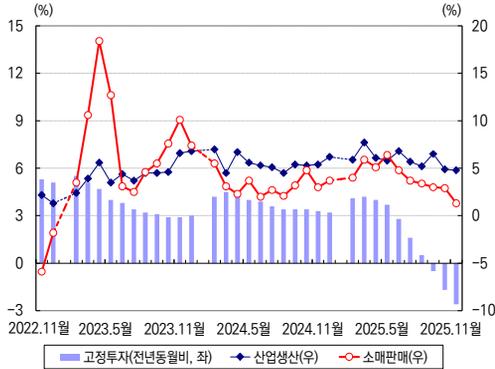
자료: 미국 연준(FRB), 미국 상무부(Census).

자료: 미국 상무부(Census).

- **(중국 경제)** 지난해 11월 생산과 소비가 전년동월비 4.8%와 1.3% 증가하는 등 연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고정투자도 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부진 심화
 - 중국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5% 내외 수준으로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올해에도 내수 중심의 성장 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
- **(일본 경제)** 지난해 11월 생산과 소비가 전월비 동반 감소세를 보이면서 다소 부진한 반면에,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도 5개월 만에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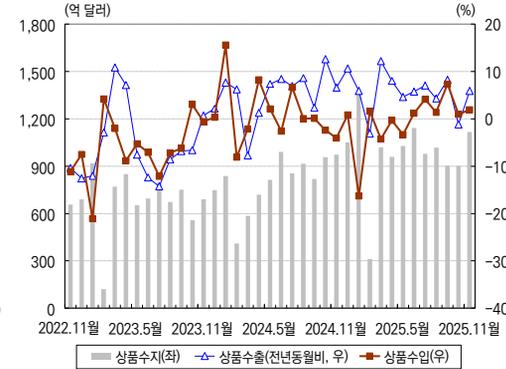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a) 실물지표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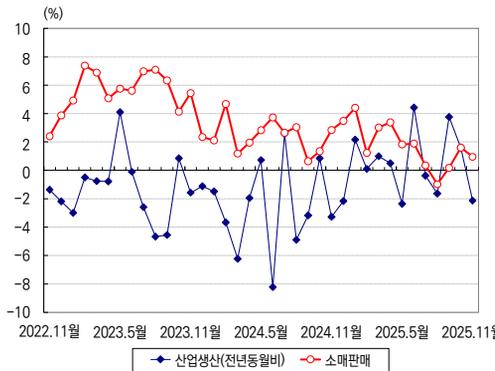
(b) 무역지표 추이



자료: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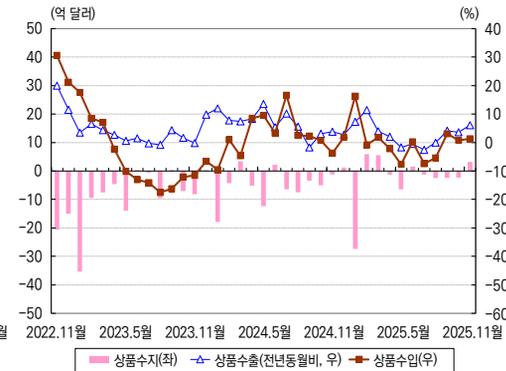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a) 실물지표 추이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b) 무역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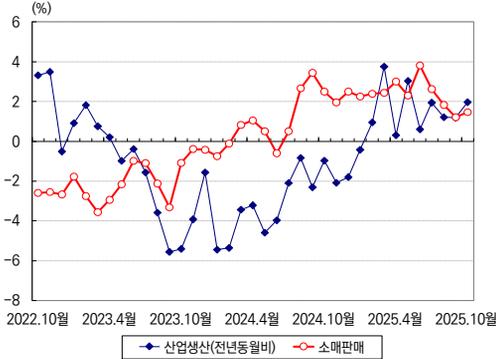


자료: 일본 내각부.

- 일본은행(BOJ)이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고, 물가·임금 상승과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인플레이 압력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
- (유로 경제) 지난해 10월 생산과 소비가 다소 미약한 흐름을 보인 반면에, 역외 수출이 미국을 제외하고 호조를 보이면서 무역흑자 지속
- 유럽중앙은행(ECB)은 역내 주요국들의 실질소득 증가와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지난해와 올해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4%와 1.2%로 0.2%포인트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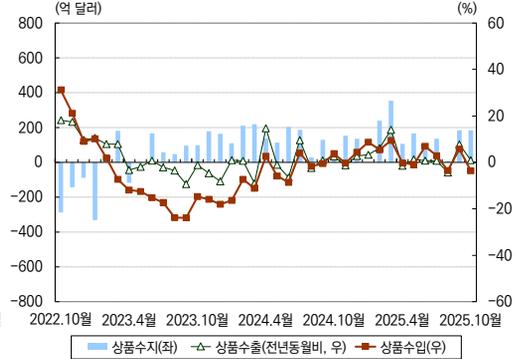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a) 실물지표 추이



자료: 유로통계기구(Eurostat).

(b) 무역지표 추이



자료: 유로통계기구(Eurostat).

세계 주요국의 실물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1/4	2/4	3/4	9월	10월	11월	전월비 ³⁾
미국	실질GDP ¹⁾	2.9	2.8	2.0 (-0.6)	2.1 (3.8)	2.3 (4.3)				
	산업생산	-0.2	-0.7	1.0	0.3	1.6	1.8	2.0	2.8	0.2
	소매판매	2.3	2.7	3.2	3.8	4.2	5.6	3.6	-	0.1
	무역수지 ²⁾	-10,563	-12,047	-4,243	-2,651	-2,889	-896	-714	-	-586
중국	실질GDP	5.4	5.0	5.4	5.2	4.8				
	산업생산	4.4	5.7	6.6	6.2	5.8	6.5	4.9	4.8	-
	소매판매	7.2	3.5	4.6	5.4	3.4	3.0	2.9	1.3	-
	고정투자	3.0	3.2	4.2	2.8	-0.5	-0.5	-1.7	-2.6	-
	무역수지(억 달러)	8,221	9,926	2,712	3,129	2,900	904	900	1,117	-
일본	실질GDP	0.7	-0.2	1.6	2.0	0.6				
	광공업생산	-1.3	-2.6	1.1	0.9	0.7	3.8	1.6	-2.1	-2.6
	소매판매	5.6	2.5	2.9	2.4	-0.1	0.2	1.6	1.0	0.6
	무역수지 ²⁾	-95,221	-56,284	-16,020	-6,232	-6,158	-2,425	-2,321	-3,167	629
유로존	실질GDP	0.5	0.8	1.6	1.6	1.4				
	산업생산	-1.7	-3.0	1.5	1.3	1.5	1.2	2.0	-	0.2
	소매판매	-1.8	1.2	2.0	2.8	1.7	1.2	1.5	-	-0.1
	무역수지 ²⁾	570	1,705	591	342	329	184	184	-	140

자료: 미국 연준·상무부, 일본 내각부·경제산업성·재무성, 유로통계기구(Eurostat),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주: 1) 괄호 안 수치는 전기비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통화 1억 기준(비계절조정치), 3) 계절조정치 기준.

(2) 국내외 금융

1) 금리·환율

□ 지난해 12월 미국과 국내 금리는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에 상방 압력을 받으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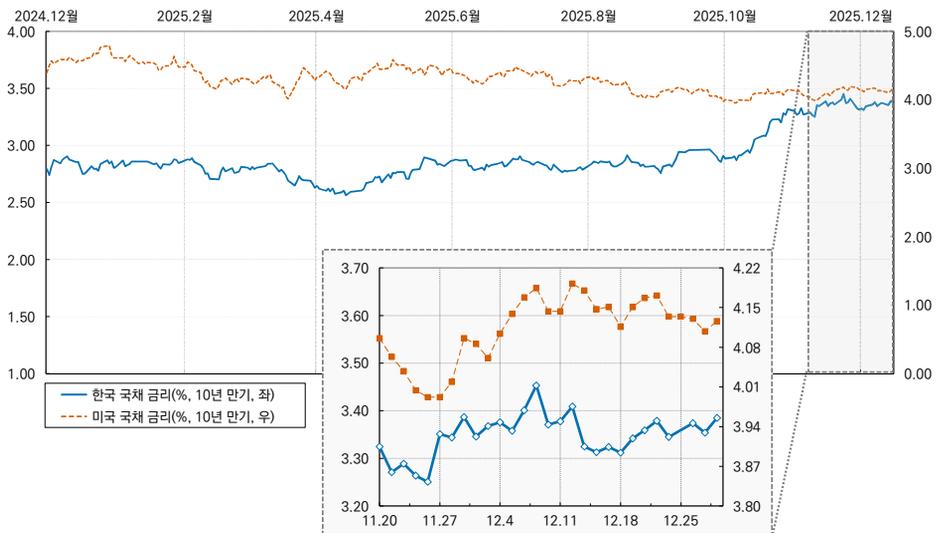
- **(미 국채 금리(10년 만기))** 일본은행(BOJ)의 지난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폭 축소 우려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10일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 이후에도 추가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과 물가·고용 둔화에 따른 상·하방 요인이 교차하며 보합권에서 등락

- 지난해 12월 말 미 국채금리(10년)는 4.16%로 전월 말 대비 0.14%포인트 상승

- **(국내 국고채 금리(10년 만기))** 일본 BOJ의 금리 인상 기대,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 전망 등이 중순까지의 상승세를 이끈 가운데, 이후 국내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 조치 발언과 주요국 국채금리 하락 영향으로 하락 전환한 뒤 강보합세

- 지난해 12월 말 국내 국고채 금리(10년)는 3.39%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

미국과 한국의 국채 금리 추이



자료: Datastream, 한국은행.

월별 국내외 금리 동향

단위: %

	2024	2025							
	연평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 국고채(3년)	3.11	2.33	2.44	2.46	2.43	2.46	2.60	2.99	2.95
한국 국고채(10년)	3.22	2.79	2.81	2.79	2.82	2.95	3.06	3.34	3.39
미국 국채(10년)	4.23	4.39	4.23	4.36	4.22	4.15	4.10	4.02	4.16
일본 국채(10년)	0.92	1.50	1.43	1.56	1.61	1.65	1.66	1.80	2.07
독일 국채(10년)	2.34	2.51	2.60	2.69	2.72	2.71	2.64	2.69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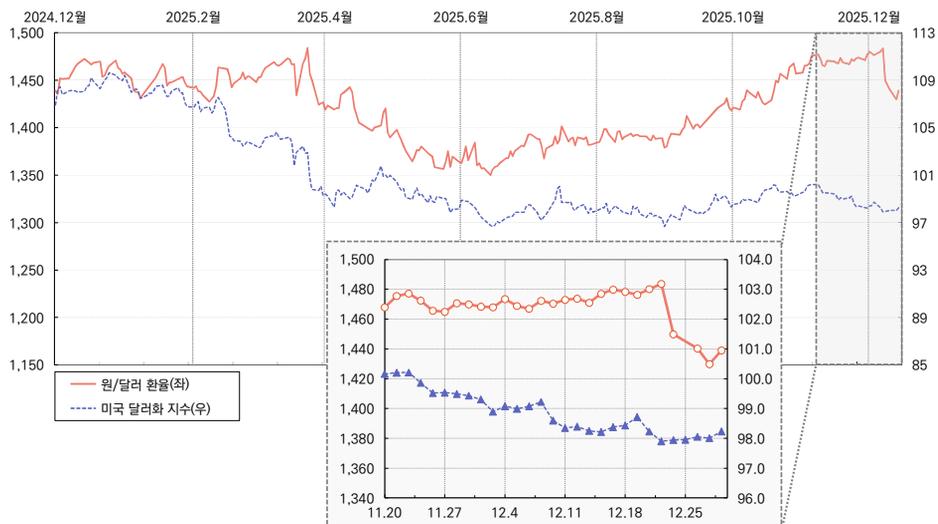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한국은행.

주: 월별 국제 금리는 월말 기준.

□ 지난해 12월 달러화는 주요국 금리 결정으로 하락, 원/달러 환율은 환율 안정 발언 영향으로 급락

- (달러화) 지난해 12월 초 일본 엔화 강세와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연준 회의 경계감으로 제한적 약세를 보이던 달러화는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와 고용 지표 둔화, 일본 BOJ의 금리 인상 기대가 겹치며 하락세 지속

달러화와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Datastream, 한국은행.

월별 주요 환율 동향

	2024	2025							
	연평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달러화 지수	104.5	99.4	96.8	100.0	97.9	97.8	99.7	99.5	98.3
달러/유로	1.08	1.14	1.18	1.14	1.17	1.17	1.15	1.16	1.17
엔/달러	151.9	144.1	144.0	150.8	147.0	147.9	154.0	156.2	156.7
위안/달러	7.19	7.20	7.16	7.20	7.13	7.12	7.12	7.08	6.99
원/달러	1,368.7	1,380.1	1,350.0	1,387.0	1,390.1	1,402.9	1,424.4	1,470.6	1,439.0

자료: Datastream, 한국은행.

주: 월별 환율은 월말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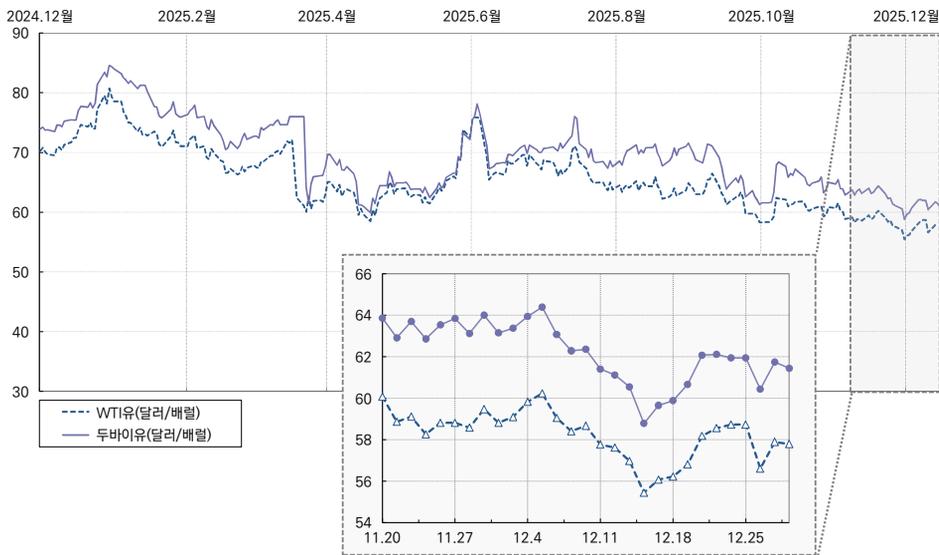
- 지난해 12월 말 엔/달러 환율은 156.7로 전월 말 대비 0.32% 상승, 달러/유로 환율은 1.17로 전월 말 대비 0.86% 상승
- **(원/달러 환율)** 외환 당국의 수급 안정화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결제 및 해외 투자 환전 수요와 일본의 금리 인상,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1,480을 상회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24일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급락하며 12월 29일 기준 1,329.8까지 하락
- 지난해 12월 말 원/달러 환율은 1,439로 전월 말 대비 2.15% 하락

2) 유가·원자재

- 지난해 11월 국제유가,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단기 상승세, 다만 공급 확대·금리 불확실성에 따른 제한적 조정이 교차
- **(국제유가)** 지난해 12월 국제유가는 OPEC+의 증산 가능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전반적인 하방 압력이 우세하게 작용하였으나, 미국의 대러·대베네수엘라 제재 강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인프라 및 정제시설 공격 등 공급 차질 우려가 병존하면서 유가 하락폭은 제한되어, 61~62달러 수준에서 등락
- **(상승 요인)** 지난해 12월 초·중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석유 터미널·송유관 및 유조선 공격 지속으로 러시아 원유·정제 공급 차질 우려 확대, 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 및 추가 제재, 대러 제재 강화 검토(EU·G7)로 증질유 및 일부 원유 공급 불안 부각, 러-우 종전 협의 지연, 중동 내 사우디-UAE 갈등, 나이지리아 공습 등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12월 FOMC 이후 경기 부양 및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수요 심리 지지 - (하방 요인) OPEC+, IEA 등 주요 기관의 올해 글로벌 석유 공급과잉 전망과 증산 가능성 시사, 중국 경기 부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석유 수요 둔화 기대 확산, 달러 강세 및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폭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국제유가 동향



자료: Datastream.

월별 국제유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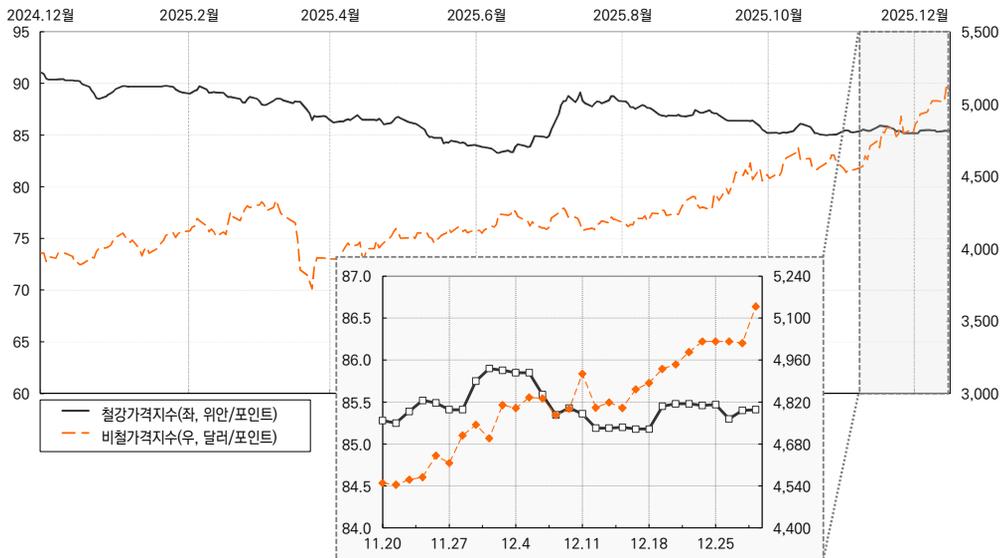
단위: 달러/배럴

	2024	2025							
	연평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WTI	76.62	62.20	68.54	68.38	64.86	63.98	60.85	60.04	58.00
두바이	81.00	63.61	69.36	71.04	69.39	69.92	64.60	64.36	61.79
브렌트	79.92	64.09	69.85	69.56	67.24	67.61	63.98	63.69	61.77

자료: Datastream.

- 지난해 12월 원자재 가격, 비철금속은 공급제약 이슈로 상승한 가운데 철강은 원료상승과 중국 경기 부진으로 보합세
- **(비철금속)**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공급 제약 이슈와 미국발 투자 수요가 부각되며 비철금속 전반에서 상방 압력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구리의 경우 선제적 수요 확대 및 광산 조업 차질로 사상 최고가 경신
- **(철강)**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기대와 제강사들의 단기 재고 비축 수요로 철광석 수요가 확대되고, 연료탄 부문에서 계절성 수요개선으로 단기 반등이 나타났으나, 중국 산업경기 부진에 따른 전력·철강 생산 둔화로 상방압력을 제한하면서 보합세 유지
- **(희소광물)** 탄산리튬은 공급망 재고 감소와 연말 수요가 겹치면서 크게 상승하였으며, 수산화리튬 역시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배터리 수요 확대로 상승세. 코발트의 경우 시장 현물 구매 수요의 지속 부진으로 보합세 유지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자료: Datastream.

국제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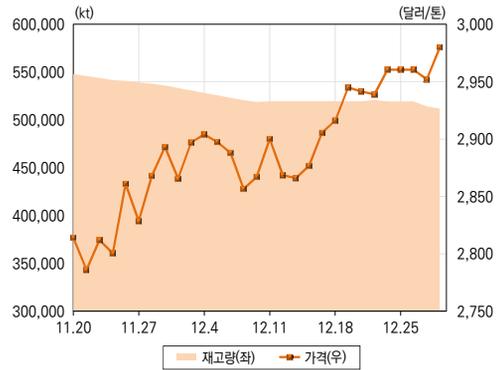
(a) 구리



(b) 니켈



(c) 알루미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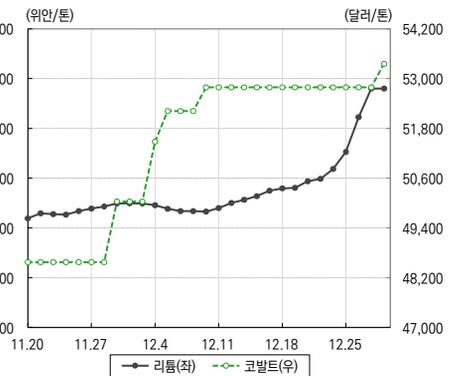
(d) 아연



(e) 철광석·연료탄(철강)



(f) 리튬·코발트(희소광물)



자료: Datastream.

국내 경제·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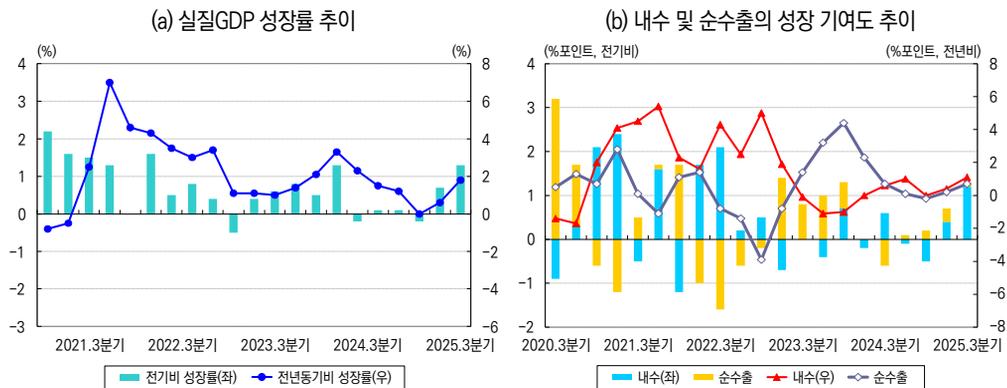
(1) 국내 경기

1) 국내 실물경기

□ 지난해 3분기 국내 경제,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세 확대로 개선 흐름

- 지난해 3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순수출 기여도(전기비 0.1%포인트)가 다소 낮아진 반면에, 내수 기여도(1.2%포인트)가 더 높아지면서 전기비 1.3%로 높아지고, 전년동기비로도 내수(1.1%포인트)와 순수출(0.7%포인트)의 성장 기여도가 더욱 확대되면서 1.8%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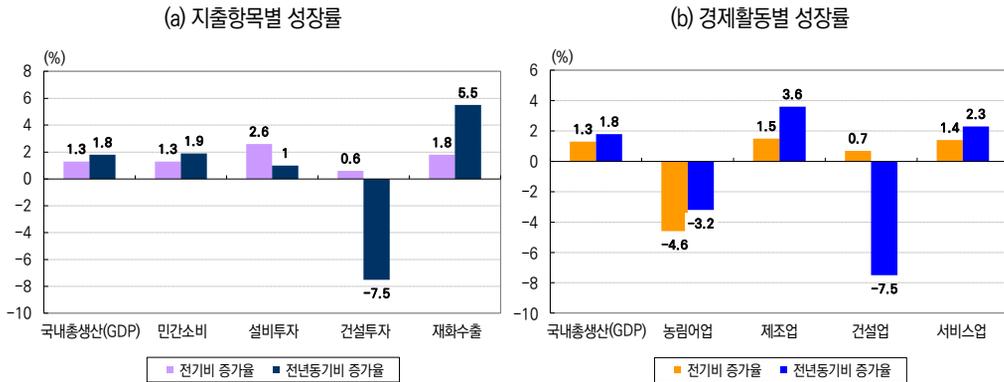
국내 실질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주요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를 제외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재화수출 등이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 건설업을 제외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전년 동기보다 증가율이 더 높아진 것이 지난해 3분기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추산

국내 지출항목별 및 경제활동별 성장을 동향(올해 3분기)



자료: 한국은행.

□ 지난해 11월 산업생산, 건설 부진 지속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확대 등으로 증가 전환

- 지난해 11월 전 산업 생산은 건설업(-17.1%)에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3.0%)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공공행정(0.5%)에서 소폭 확대되면서 증가로 전환

국내 산업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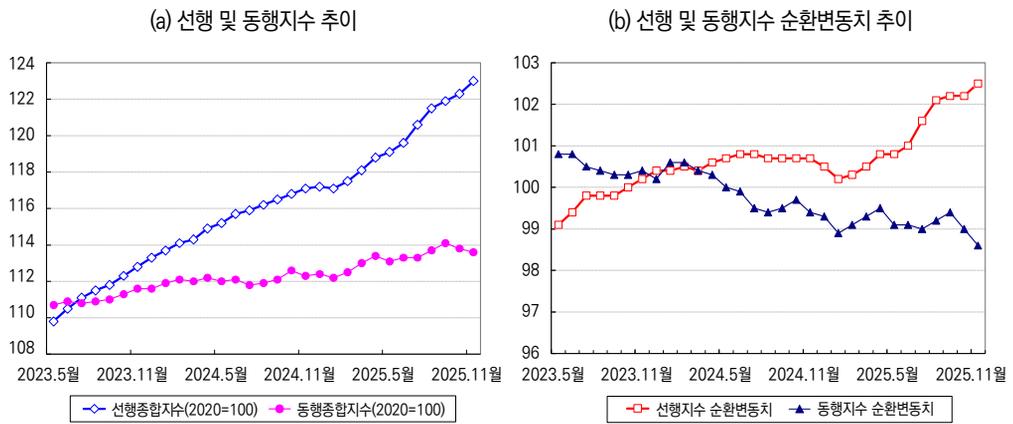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1/4	2/4	3/4	9월	10월	11월	전월비
전 산업 생산(농림어업 제외)	1.2	1.5	-0.5	0.3	2.9	7.0	-3.7	0.3	0.9
광공업	-2.6	4.1	2.0	2.1	5.9	12.1	-8.2	-1.4	0.6
건설업	7.8	-4.7	-21.2	-17.4	-11.8	-3.7	-24.9	-17.1	6.5
서비스업	3.4	1.1	0.4	1.4	3.1	6.4	0.8	3.0	0.7
공공행정	-6.9	-0.7	0.9	-0.4	0.3	1.0	-2.3	0.5	0.5

자료: 국가데이터처.

- 지난해 11월 경기종합지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보합세 속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 전환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서비스업생산지수,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이 상승하였으나, 내수출하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하락하여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반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등이 하락하였으나,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등이 상승하며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

국내 경기종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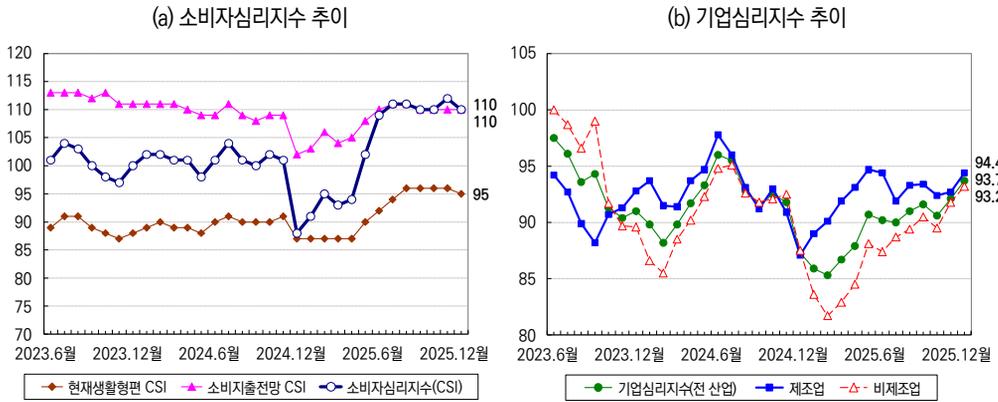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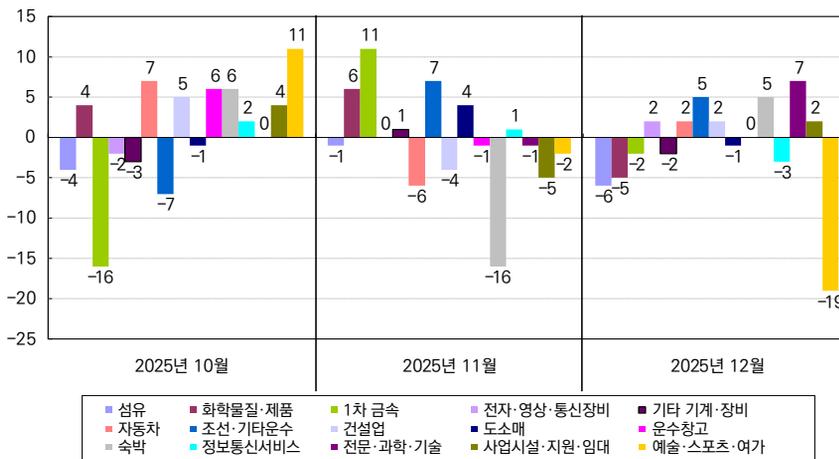
2) 국내 체감경기

- 지난해 12월 체감경기, 소비자심리 소폭 하락, 기업심리지수 연중 최고치
-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형편지수(95)가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고, 소비전망지수(110)가 전월 수준에 그치면서 3개월 만에 하락(110)
- 기업심리지수는 제조업지수(94.4)와 비제조업지수(93.2)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연중 최고치 기록(93.7)
- 업종별 경기실사지수는 제조업에서 섬유와 화학물질·제품, 1차금속, 기타기계·장비 등 업종이 하락한 반면, 전자·영상·통신장비, 자동차, 조선·기타운수 등 업종이 상승했고,

국내 주요 체감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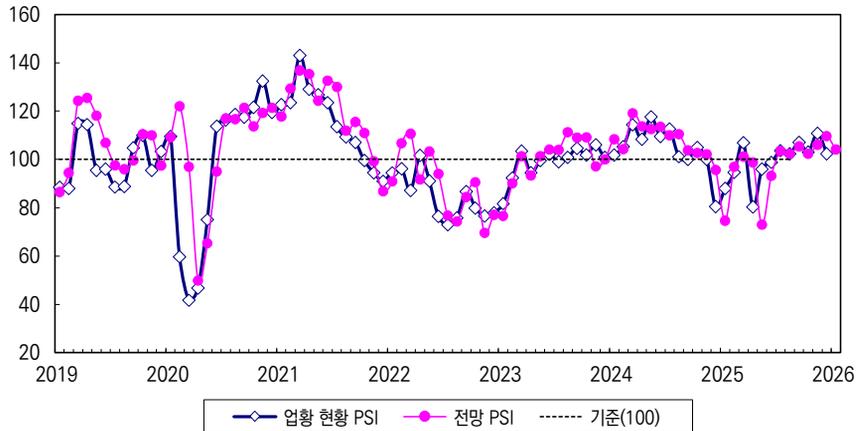
주요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전월비 변화폭 동향(업황 현황 BSI 기준)



비제조업의 경우 예술·스포츠·여가, 정보통신서비스, 도소매 등 업종이 하락했고, 숙박,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지원·임대, 건설 등 업종이 상승

- 산업연구원의 국내 제조업 전문가 대상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의 지난해 12월 업황 현황 PSI는 102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여전히 상회하나, 전월비 기준으로는 하락(-9포인트)

국내 제조업 업황 PSI 추이



자료: 산업연구원.

국내 제조업의 주요 유형별 업황 PSI

	업황 현황 PSI					업황 전망 PSI				
	지수			전월비		지수			전월비	
	2025년 10월	2025년 11월	2025년 12월	2025년 11월	2025년 12월	2025년 11월	2025년 12월	2026년 1월	2025년 12월	2026년 1월
제조업	103	111	102	(+8)	(-9)	106	110	104	(+4)	(-6)
ICT 부문	125	125	111	(0)	(-14)	114	120	107	(+6)	(-13)
기계 부문	80	100	95	(+20)	(-5)	98	102	98	(+4)	(-4)
소재 부문	97	92	91	(-5)	(-1)	97	94	103	(-3)	(+9)

자료: 산업연구원.

- 올해 1월 업황 전망 PSI는 104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여전히 상회하나, 전월비 기준으로는 하락(-6포인트)
- 주요 유형별 지난해 12월 업황 현황 PSI는 ICT 부문(111)에서 기준치를 8개월 연속 상회하나, 기계 부문(95)은 기준치를 다시 하회하고, 소재 부문(91)은 8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 올해 1월 업황 전망 PSI는 ICT 부문(107)은 8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고, 소재 부문(103)도 3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하나, 기계 부문(98)은 100을 하회하면서 부진 우려감 확대

(2) 소비·고용

□ 지난해 11월 소매판매,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약품 등 비내구재 증가로 증가

- (재화별) 소매판매액은 준내구재(전년동월비 -1.5%)가 감소하였으나 내구재(4.1%)와 비내구재(0.2%)가 증가하여 소폭 증가
 - 내구재는 승용차,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에서 증가하여 상당폭 증가

국내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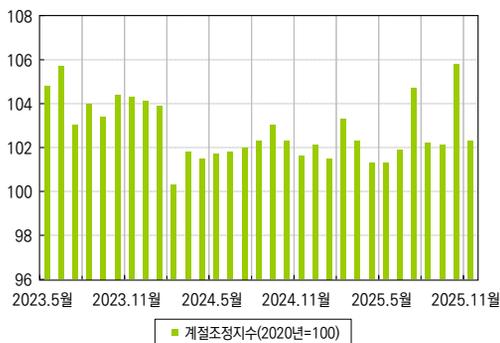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1/4	2/4	3/4	9월	10월	11월	전월비
소매판매액	-1.3	-2.1	-0.3	0.0	1.5	2.2	0.4	0.8	-3.3
내구재	-1.1	-3.9	3.0	4.9	7.3	11.2	-3.8	4.1	-0.6
통신기기 및 컴퓨터	3.8	-3.4	1.7	3.8	3.6	2.5	-6.7	1.3	-1.1
준내구재	-0.5	-3.0	-4.2	-4.5	0.8	-0.2	1.0	-1.5	-3.6
의복	1.2	-4.0	-2.2	-4.2	2.0	0.9	2.9	0.8	-2.8
비내구재	-1.8	-0.9	-0.4	-0.7	-0.9	-0.8	1.9	0.2	-4.3
음식료품	-3.0	-1.5	-0.4	-0.3	-2.9	-3.7	4.3	-3.0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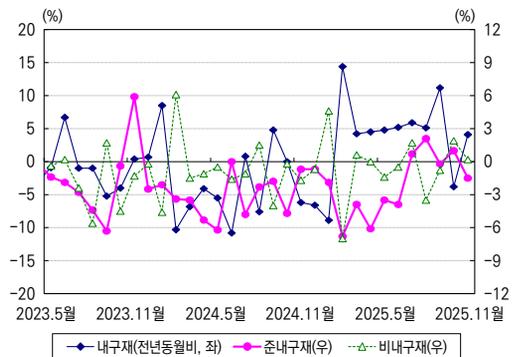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주: 계절조정 기준.

(a) 소매판매액지수 추이



(b) 소매판매 재화별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 소매업태별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1/4	2/4	3/4	9월	10월	11월	전월비
백화점	1.8	-2.4	-1.3	-3.3	0.8	1.6	6.3	4.4	-4.0
대형마트	0.5	-2.0	-1.3	-3.7	-9.2	-10.0	7.1	-8.3	-14.1
면세점	-25.4	3.1	-19.1	-12.2	-16.8	-12.5	-7.0	-2.9	3.1
슈퍼마켓·잡화점	1.1	-2.3	-2.9	-3.6	-7.4	-10.5	1.4	-4.8	-8.7
편의점	-5.2	-0.1	-3.3	-3.6	-1.5	-1.9	-2.4	-2.7	1.1
승용차·연료소매점	3.0	-4.1	4.2	7.4	8.6	11.6	-6.7	3.7	0.8
전문소매점	-1.2	-4.5	0.3	-0.5	1.0	-1.3	3.7	1.3	-2.7
무점포소매	1.2	2.4	-0.6	-0.4	6.0	12.0	-0.5	2.2	-3.1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 전문소매점은 의복, 통신기기, 가전제품, 의약품 등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 준내구재는 의복을 제외한 오락·취미·경기용품, 신발·가방 등이 감소하여 1개월 만에 다시 감소 전환
-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차량연료 등에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료품, 서적·문구 등이 감소하여 증가폭이 축소
- **(소매업태별)** 지난해 11월 소매업태별 판매는 백화점, 승용차·연료소매점, 무점포소매 등에서 증가했으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잡화점, 면세점, 편의점 등에서 감소
- 지난해 11월 전 산업 취업자 수, 고령층 및 서비스업 증가 유지로 전년동월비 0.8% 증가
- **(산업별)** 지난해 11월 전 산업 취업자 수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에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
- **(연령대별)** 65세 이상 연령층은 전년동월비 9.2%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15~29세 청년층은 4.8% 감소하는 등 하반기 들어 감소세가 지속
-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견조한 증가세에 힘입어 1.3% 증가하며 올해 들어 증가세가 지속

국내 고용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전 산업	1.2	0.6	0.6	0.7	0.8	0.6	1.1	0.7	0.8	
산업별	농림·어업	-0.8	-1.9	-2.4	-8.5	-8.6	-8.6	-9.1	-7.8	-8.6
	제조업	-0.9	-0.1	-1.8	-2.0	-1.5	-1.4	-1.4	-1.2	-0.9
	건설업	-0.4	-2.3	-8.3	-5.7	-5.0	-6.5	-4.1	-6.0	-6.3
	서비스업	2.1	1.1	2.0	2.7	2.7	2.5	3.1	2.5	2.7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4	-0.6	-0.3	-0.5	0.0	0.0	1.0	1.2	-0.2
	전기·운수·통신·금융	2.2	4.2	2.9	3.4	1.4	0.8	1.1	1.4	3.4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2.2	1.2	3.1	4.0	4.1	4.0	4.4	3.2	3.6
연령별	15~29세(청년층)	-2.4	-3.7	-5.8	-4.4	-4.6	-5.8	-3.9	-4.4	-4.8
	30~64세	0.8	0.1	0.1	0.3	0.2	0.0	0.4	0.0	0.1
	65세 이상	8.0	8.0	10.0	8.1	8.7	9.7	9.5	9.0	9.2
종사상시위	임금근로자	1.5	1.0	0.9	1.4	1.4	1.2	1.7	1.4	1.3
	상용근로자	3.0	1.1	1.4	1.9	2.1	2.1	2.1	1.8	1.6
	비상용근로자	-2.6	0.5	-0.5	-0.2	-0.4	-1.3	0.8	0.4	0.6
실업률(계절조정, %)	2.7	2.8	2.8	2.7	2.5	2.6	2.5	2.6	2.7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3) 투자

□ 지난해 11월 설비투자, 기계류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감소세 지속

- 지난해 11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18.4%)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정밀기기(4.4%)를 제외한 기계류(-2.8%) 부문이 줄면서 전년동월비 0.1% 감소
 - 전월비 기준으로는 자동차(-9.1%) 등 운송장비(-6.5%)가 줄었지만, 반도체 등 기계류(5.0%)가 늘면서 1.5% 증가
 -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는 지난해 11월 비제조업(-2.9%)의 부진이 이어졌

국내 설비투자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1/4	2/4	3/4	9월	10월	11월	전월비	
부 문 별	설비투자	-4.8	2.9	5.7	5.3	1.9	12.6	-4.3	-0.1	1.5
	기계류	-7.1	1.9	4.8	0.4	2.6	3.6	-9.1	-2.8	5.0
	일반기계류	-9.7	4.7	8.7	-0.4	-0.7	-3.0	-12.3	-2.6	8.8
	전기 및 전자기기	-3.7	-2.9	-4.6	-1.8	7.8	15.8	2.4	-4.8	-9.4
	정밀기기	-2.5	1.0	9.2	12.0	9.8	15.6	-11.5	4.4	15.3
	기타기기	-3.4	-4.4	-3.5	-6.8	-1.6	8.9	-14.2	-9.5	4.5
	운송장비	2.8	5.3	8.1	18.3	0.9	39.7	8.1	7.2	-6.5
	자동차	2.0	-6.6	7.5	16.7	21.0	35.2	-2.4	1.0	-9.1
	기타운송장비	4.5	31.3	6.3	15.9	-32.5	40.0	29.5	18.4	-0.6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주: 10월과 11월은 잠정치.

국내 기계수주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1/4	2/4	3/4	9월	10월	11월	전월비	
수 요 자 별	국내수요	-2.6	-2.7	18.3	5.1	-13.5	22.3	-16.1	16.9	36.2
	민간수요	-8.2	-0.3	18.6	8.2	-9.2	9.0	-16.0	11.1	29.5
	제조업	-7.9	-2.2	39.7	6.6	-15.1	1.8	-12.2	16.9	30.2
	[ICT 부문]	-14.9	3.0	21.3	25.4	-19.7	-14.5	-14.6	-3.3	
	[기계 부문]	-8.7	-5.8	64.9	22.8	-21.5	18.5	30.5	52.8	
	[소재 부문]	25.9	-42.3	229.6	-26.1	15.9	29.7	-72.1	110.2	
	비제조업	-9.1	4.0	-10.1	12.4	7.4	26.6	-24.4	-2.9	27.5
	[건설업]	-9.0	-4.9	68.0	10.1	28.7	73.4	-42.1	19.6	
	[서비스]	-9.5	8.1	-30.9	13.7	1.3	14.2	-16.1	-8.2	
	유통서비스	-6.3	14.3	-33.8	22.2	-3.1	17.8	-17.0	-9.5	
	생산자서비스	-7.3	-14.0	-35.8	3.6	17.4	14.0	-11.5	-0.4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주: 10월과 11월은 잠정치.

으나, 제조업(16.9%)이 반등하면서 전년동월비 16.9% 늘었고, 전월비로는 제조업(29.5%)과 비제조업(27.5%)이 모두 늘면서 36.2% 증가

□ 지난해 11월 건설투자, 건축과 토목의 동반 부진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건설수주도 감소세 지속

- 지난해 11월 건설투자는 건축(-16.1%)과 토목(-19.7%)의 공사실적이 모두 줄면서 전년동월비 17.0% 감소
 - 건설기성액은 1년 7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월비로는 건축(9.6%)의 공사실적이 개선되면서 6.6% 증가

국내 건설기성액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공종별		2023	2024	2025						
				1/4	2/4	3/4	9월	10월	11월	전월비
공종별	합계	7.8	-4.7	-21.2	-17.4	-11.8	-3.7	-24.8	-17.0	6.6
	건축	9.9	-6.7	-22.7	-18.5	-12.8	-2.4	-26.8	-16.1	9.6
	토목	1.8	2.0	-16.1	-14.1	-8.7	-7.2	-18.6	-19.7	-1.1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주: 10월과 11월은 잠정치.

- 지난해 11월 건설수주액은 건축(-7.3%)과 토목(-17.3%)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비 9.2% 감소
 - 전월비로는 63.3% 증가하면서 반등

국내 건설수주액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공종별		2023	2024	2025						
				1/4	2/4	3/4	9월	10월	11월	전월비
공종별	합계	-18.3	10.9	1.1	-5.4	29.4	-1.1	-35.4	-9.2	63.3
	건축	-30.5	17.5	24.0	13.2	31.6	-0.2	-40.0	-7.3	
	토목	23.9	-1.8	-41.6	-43.8	23.9	-4.4	-23.9	-17.3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주: 10월과 11월은 잠정치.

(4) 산업생산

- 지난해 11월 제조업 생산, 주요 부문의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 지난해 11월 제조업 생산은 기계(1.2%)가 반등했으나, ICT(-0.3%), 소재(-5.3%) 등에서 부진하면서 전년동월비 1.5% 감소
 - 전월비로는 자동차, 기계장비 등 기계(-3.4%)와 소재(-0.9%) 부문에서 감소했지만, ICT(7.8%) 부문이 크게 늘면서 0.7% 증가
 - 지난해 11월 제조업 재고율은 출하가 크게 늘면서 전월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70.9% 기록

국내 주요 제조업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1/4	2/4	3/4	9월	10월	11월	전월비
제조업 생산	-2.6	4.2	2.0	2.3	6.1	12.5	-8.4	-1.5	0.7
[ICT 부문]	-4.7	16.9	13.1	13.4	17.2	25.8	-3.8	-0.3	7.8
[기계 부문]	3.6	-0.7	2.1	2.4	7.9	11.7	-8.6	1.2	-3.4
[소재 부문]	-6.5	-0.9	-3.5	-1.7	0.8	5.8	-7.7	-5.3	-0.9
재고율	103.7	100.4	104.4	103.1	104.3	105.4	106.0	104.9	
평균가동률	72.1	72.7	72.5	72.5	73.6	73.6	70.8	70.9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주: 10월과 11월은 잠정치. 재고율은 100*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계절조정)로 계산.

- 지난해 11월 서비스업 생산, 유통·생산자·사회서비스 등 동반 증가로 전년동월비 3.0% 증가
 - 지난해 11월 서비스업 생산은 개인서비스(1.8%), 유통서비스(3.3%), 생산자서비스(2.7%), 사회서비스(4.3%) 등 모든 유형에서 동반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3.0% 증가

국내 주요 서비스업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1/4	2/4	3/4	9월	10월	11월	전월비
서비스업 생산	3.4	1.1	0.4	1.4	3.2	6.4	0.8	3.0	0.7
개인서비스	2.9	-0.9	-2.8	-1.6	1.3	2.1	-3.3	1.8	2.9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0	-1.8	-6.3	-2.6	-0.2	3.3	-13.4	-2.1	4.0
숙박·음식점	0.8	-1.8	-3.6	-2.1	1.5	3.0	-0.7	0.9	-0.3
예술·스포츠·여가	6.9	1.5	-4.0	-0.2	1.4	-1.6	-0.3	4.6	2.2
협회·수리·개인	4.9	-1.3	1.9	-1.8	1.0	4.3	-9.1	2.1	11.1
유통서비스	3.7	1.6	0.9	2.1	5.5	10.4	0.9	3.3	-1.0
도소매	-0.5	-2.1	-1.2	0.6	6.9	12.9	1.5	4.2	-1.6
운수·창고	11.9	8.1	4.3	4.5	3.4	6.3	-0.1	2.0	0.0
생산자서비스	4.1	1.5	0.8	1.7	2.3	5.6	0.5	2.7	1.7
정보통신	0.3	2.3	1.3	2.7	2.0	4.1	-1.1	2.2	2.7
금융·보험	7.0	2.3	1.4	3.2	2.7	6.0	2.1	4.2	2.2
부동산	2.4	-2.0	-0.8	-1.4	-1.2	0.2	-3.2	-2.4	0.1
전문·과학·기술	1.5	1.2	1.3	1.4	3.8	9.2	0.2	4.3	2.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5.1	0.4	-1.6	-1.9	1.7	5.0	0.2	-0.8	-1.1
사회서비스	2.7	1.7	1.2	2.7	2.9	4.3	4.2	4.3	0.1
교육	0.4	-0.5	-2.1	-1.4	-0.9	0.4	-1.0	0.7	0.1
보건·사회복지	4.1	3.0	3.1	4.8	4.8	6.3	6.9	6.2	0.1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주: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

-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업시설관리·지원(-0.8%)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보건·사회복지(6.2%), 전문·과학·기술(4.3%), 도소매(4.2%)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
- 전월비로는 도소매(-1.6%), 사업시설관리·지원(-1.1%), 숙박음식점(-0.3%) 등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정보통신업(2.7%), 전문·과학·기술(2.0%) 등 업종은 증가

(5) 물가

-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상승과 석유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상승폭 유지
-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3.6%), 음식·숙박(3.0%) 및 주택·수도·전기·연료(1.3%) 등의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2.3% 상승
 - 전월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0.7%), 교통(0.6%), 음식·숙박(0.4%) 등의 동반 상승 영향으로 0.3% 상승

국내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1/4	2/4	3/4	10월	11월	12월	전월비
소비자물가	3.6	2.3	2.1	2.0	2.4	2.4	2.4	2.3	0.3
근원물가	4.0	2.1	2.4	2.2	2.4	2.5	2.3	2.3	0.2
주요 품목별									
식료품·비주류음료	5.5	3.9	2.9	3.9	3.9	3.5	4.7	3.6	0.7
주택·수도·전기·연료	5.1	1.7	1.9	1.4	1.2	1.2	1.2	1.3	0.2
교통	-3.4	1.4	-0.5	0.4	3.3	3.4	3.2	3.2	0.6
음식·숙박	6.0	3.1	3.2	3.2	3.0	3.2	2.9	3.0	0.4

자료: 국가데이터처.

- 지난해 11월 생산자물가, 반도체 가격 상승과 서비스 물가 상승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
- 주요 품목별로 농림수산물(5.5%), 서비스(2.2%), 공산품(1.9%) 등 대부분 품목이 상승하며 전년동월비 상승폭 확대
 - 전월비로는 농림수산물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이 하락한 반면, 공산품과 서비스 등이 상승

국내 생산자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1/4	2/4	3/4	8월	9월	10월	전월비
생산자물가	1.6	1.7	1.5	0.5	0.8	1.2	1.6	1.9	0.3
근원물가	0.9	1.6	1.5	0.4	0.6	1.0	1.5	1.9	0.3
주요 품목별									
농림수산물	3.0	4.5	-2.3	-0.5	2.8	-0.9	4.0	5.5	-2.1
공산품	-1.0	0.9	1.3	-0.6	-0.2	0.7	1.2	1.9	0.8
전력·가스·수도·폐기물	15.9	3.2	4.7	5.0	3.1	2.9	1.5	-1.2	-0.4
서비스	2.5	2.2	1.6	1.3	1.5	1.7	2.1	2.2	0.1
업종									
자동차	2.8	1.9	0.4	0.4	0.5	0.5	0.5	0.4	0.0
기계	2.4	1.7	1.0	1.1	0.7	0.7	0.8	0.8	0.1
철강	-5.0	-2.1	1.0	1.1	0.7	1.9	3.2	4.9	1.4
정유	-16.4	-0.2	0.5	-9.8	-5.3	0.8	-2.2	2.0	5.8
화학	-2.6	0.6	3.5	0.1	0.5	-0.2	0.1	0.1	0.1
섬유	4.1	0.5	0.5	-2.3	-1.6	-0.2	-0.1	0.0	0.1
가전	0.8	0.0	0.6	0.3	-0.3	-0.3	0.0	0.4	0.4
반도체	-18.2	17.0	4.9	-1.9	0.2	2.5	25.0	40.2	12.3
디스플레이	-10.9	1.1	3.3	-2.3	-2.5	-0.8	0.4	0.3	0.4

자료: 한국은행.

- 업종별로는 섬유가 포함인 반면, 반도체와 철강 등 대부분 업종에서 상승
 - 전월비로는 반도체, 정유, 철강, 가전, 디스플레이, 기계, 화학 및 섬유가 상승한 반면 자동차는 포함

(6) 수출입

1) 수출입·무역수지

□ 지난해 12월 수출, 7개월 연속 증가, 무역 흑자 폭은 확대

-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3.4% 증가한 696억 달러이고, 수입은 4.6% 증가한 574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25억 달러 증가한 122억 달러 기록
 -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석유제품, 바이오헬스 등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 석유화학, 가전, 섬유, 철강 등은 감소
 - 수입은 에너지 부문의 16개월 연속 감소(-6.8%)에도 불구하고, 비에너지 부문의 큰 폭 증가(7.3%)로 증가
- 품목군별 수출은 ICT산업군, 기계산업군, 소재산업군, 신산업군 모두 증가세 지속
 - (ICT산업군)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10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디스플레이는 LCD 호조세로 증가하였고, 무선통신기기는 프리미엄폰 판매 호조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컴퓨터는 기업용 SSD의 견조한 수요 지속으로 증가가 지속된 반면, 가전은 미국 내 대형 가전 수요 둔화와 글로벌 시장 회복 지연 등에 따라 감소 지속

국내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3	2024	2025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수출	6,322 (-7.5)	6,836 (8.1)	1,751 (2.1)	1,849 (6.5)	1,901 (8.5)	659 (12.6)	595 (3.5)	610 (8.4)	696 (13.4)
수입	6,426 (-12.1)	6,318 (-1.7)	1,542 (-1.8)	1,624 (1.5)	1,622 (1.4)	564 (8.2)	535 (-1.5)	513 (1.1)	574 (4.6)
무역수지	-103	518	209	225	279	95	60	97	122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2) 12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주요 품목군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총수출	-7.5	8.1	2.1	6.5	8.5	12.6	3.5	8.4	13.4
ICT산업군	-25.1	39.4	11.1	19.0	30.6	16.6	20.1	31.5	39.1
기계산업군	-8.9	10.9	-0.2	6.6	9.5	10.7	5.9	8.1	14.0
소재산업군	-20.1	19.9	1.5	8.0	16.4	10.4	8.1	15.2	25.1
신산업군	-12.2	0.9	7.6	-3.5	0.5	19.6	-8.9	0.8	8.5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부.

주: 12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기계산업군) 자동차는 현지 생산 증가, 전년도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감소로 전환하였고, 자동차부품은 부품 현지 조달 비율 증가와 EU 경기 둔화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선박은 해양플랜트 인도 감소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일반기계는 미국의 철강 파생상품 관세, 중국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감소 지속
- (소재산업군) 석유제품은 수출단가 하락에도 물량 증가로 금액이 증가로 전환하였고,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지속 감소한 가운데,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섬유는 재고 조정에 따른 신규 주문 감소 등으로 감소 지속
- (신산업군) 바이오헬스는 위탁생산 수주 물량 출하·수출 물량 증가로 증가세 지속, 이차전지는 현지 생산 확대, 미 관세 및 전기차 지원 축소로 수출 감소
- 지역별 수출은 일본, CIS를 제외한 미국, 중국, 아세안, EU, 중남미, 인도, 중동 등 다수 지역에서 증가세
 - 대중국은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의 호조로 증가
 - 대미국은 자동차, 일반기계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호조로 증가하여 5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대아세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크게 증가
 - 대EU는 자동차, 일반기계, 반도체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박 등이 감소하며 전체 보합세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중국	-19.9	6.6	-2.5	-1.9	3.8	0.4	-5.1	6.9	10.1
미국	5.4	10.4	-5.3	-4.0	-3.8	-1.4	-16.2	-0.2	3.8
일본	-5.2	2.1	-4.2	-2.0	-7.6	3.5	-8.5	-7.7	-6.8
아세안	-12.6	4.5	1.7	12.8	8.8	17.7	-7.0	6.5	27.6
EU(27)	0.2	-0.2	11.7	5.7	-1.1	19.3	-2.1	-1.9	0.5
베트남	-12.3	9.1	1.5	12.5	9.5	19.0	-2.5	5.1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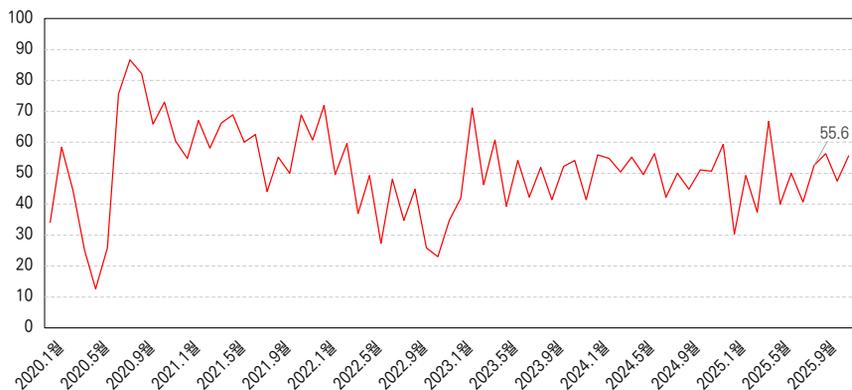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부.
주: 12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2) 수출경기·교역지표

□ 지난해 11월 수출경기확산지수는 전월비 상승하여 향후 수출 확대 기대

- 지난해 11월 수출경기확산지수는 전월비 8.1포인트 상승한 55.6포인트를 기록하며 향후 수출 경기 국면을 긍정적으로 예고

국내 수출경기확산지수 추이



자료: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가데이터처.

주: 수출경기확산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보다 크면 경기상승(확장) 국면, 작으면 경기하락(수축) 국면, 50일 때는 경기 전환점이며 실수출경기보다 수출은 약 7.4개월 선행.

- (원료 및 연료) 10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전월비 상승한 가운데, 금속광 등은 전월비 상승, 경유, 벙커C유, 기타 석유제품, 기타 원료 및 연료 등은 하락
- (경공업) 55개 품목 중 28개 품목이 전월비 상승한 가운데, 직물제 의류, 기타 고무제품 등은 전월비 상승, 화섬직물, 편물제 의류, 플라스틱 제품 등은 하락
- (중화학공업) 59개 품목 중 34개 품목이 전월비 상승하였으며, 의약품, 정밀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메모리 반도체 등은 상승한 반면, 무선통신기기, 승용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 등은 하락

□ 지난해 11월 수출금액, 단가와 물량 모두 증가에 힘입어 증가 전환

- (수출금액) 지난해 11월 수출금액은 단가와 물량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9.1% 증가
 - 수출단가는 7.0% 상승하며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수출물량은 6.8% 증가하여 전월과 달리 증가로 전환되면서 수출금액 증가를 견인
- (수출물량) 지난해 11월 수출물량은 공산품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6.8% 증가
 - 농림수산품은 5.0% 감소했으나, 공산품(6.9%)이 증가로 전환되면서 전체 수출물량 증가를 주도
- (수출물가) 지난해 11월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7.0% 상승
 - 농림수산품은 9.4% 상승하며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공산품(7.0%)은 1차금속제품(11.1%),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9.5%)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 (수입금액) 지난해 11월 수입금액은 물가와 물량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0.7% 증가
 - 수입물가와 수입물량 모두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되며 수입금액 증가를 견인
- (수입물량) 지난해 11월 수입물량은 농림수산품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4.3% 증가
 - 농림수산품은 4.3% 감소로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감소폭은 전월보다 축소되었고, 공산품은 6.1% 증가로 증가세가 전월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수입물량 증가를 주도

국내 수출 물가 및 물량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수출금액	-8.4	7.4	-3.0	1.3	6.1	2.0	12.0	-0.6	9.1
수출물량	1.0	5.5	-1.6	5.6	9.5	5.4	14.5	-1.1	6.8
농림수산물	14.9	7.2	20.6	-2.9	7.9	0.6	18.7	-5.5	-5.0
공산품	1.0	5.6	-1.6	5.7	9.5	5.4	14.5	-1.1	6.9
수출물가	-8.2	6.1	7.1	-2.2	-1.2	-1.1	2.1	4.8	7.0
농림수산물	-9.8	-2.3	4.4	6.6	9.2	9.8	9.9	8.9	9.4
공산품	-8.2	6.2	7.1	-2.3	-1.3	-1.1	2.0	4.8	7.0
석탄 및 석유제품	-14.9	-2.4	-2.1	-14.7	-4.1	-5.0	5.3	1.6	4.2
화학제품	-10.2	2.6	7.6	-3.5	-4.9	-4.8	-1.8	-2.1	-2.1
1차금속제품	-9.4	0.4	7.4	-0.7	2.8	3.4	5.9	8.8	11.1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18.5	19.2	9.5	-1.5	-0.7	-0.5	2.3	12.7	19.5
전기장비	4.0	5.3	9.5	3.2	2.1	2.3	3.6	4.7	5.1
기계 및 장비	3.7	4.2	6.4	1.8	1.8	2.1	3.8	4.8	4.9
운송장비	3.8	5.6	9.6	0.8	-2.2	-1.8	-0.3	0.3	0.4

자료: 한국은행.

주: 수출물가는 원화 기준, 11월은 잠정치.

- **(수입물가)** 지난해 11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2.2% 상승
 - 원재료는 광산품(-6.0%)의 하락세 지속 영향으로 하락하고,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의 하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1차 금속제품 등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다수 품목에서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3개월 연속 상승

국내 수입 물가 및 물량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수입금액	-12.6	-2.2	-2.1	-2.4	1.9	-3.9	7.8	-2.4	0.7
수입물량	-3.9	-0.5	1.0	4.7	7.8	2.1	13.7	0.9	4.3
농림수산물	-5.1	-3.0	-2.1	-0.7	4.6	-0.8	15.1	-15.2	-4.3
광산품	-7.8	-2.8	-7.2	3.7	4.5	4.2	4.9	3.5	-2.6
공산품	-2.4	0.2	4.1	4.6	8.4	1.2	15.6	0.7	6.1
수입물가	-8.1	2.6	4.7	-4.6	-2.5	-2.2	0.7	0.5	2.2
원재료	-14.1	0.4	1.8	-13.2	-7.5	-6.6	-2.6	-6.9	-5.0
농림수산물	-11.5	5.2	19.1	5.7	1.8	3.8	3.3	5.2	6.3
광산품	-14.5	0.0	0.2	-14.9	-8.4	-7.6	-3.2	-8.1	-6.0
중간재	-7.1	3.9	6.5	-2.3	-1.9	-1.8	1.0	3.2	5.4
석탄 및 석유제품	-16.2	6.8	4.9	-10.0	-9.9	-11.2	-5.4	-10.2	-10.3
화학제품	-8.8	0.1	8.2	0.9	-0.2	0.1	1.4	2.0	3.0
1차금속제품	-6.0	1.5	10.1	-1.9	2.7	3.4	6.4	9.8	11.7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6.1	13.3	2.4	-6.6	-5.8	-6.1	-2.0	8.2	15.3
전기장비	0.1	-0.1	9.7	-0.2	-2.4	-2.4	-1.1	-0.3	-1.3
기계 및 장비	1.2	2.6	10.1	9.6	6.0	5.5	6.0	6.2	6.9
운송장비	4.0	1.8	4.9	7.0	6.2	6.0	6.6	7.9	9.8
자본재	1.5	2.6	5.7	2.9	2.4	2.6	3.3	3.9	4.5
소비재	-1.3	3.8	5.2	2.5	2.8	2.8	4.6	5.1	5.4

자료: 한국은행.

주: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 11월은 잠정치.

3

주요 산업별 동향

(1) 자동차

- 지난해 11월, 생산과 내수, 전년동월 실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 전환
-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동월 실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완성차 및 부품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1.7% 감소
 - 완성차는 하이브리드차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높은 내연기관차와 해외생산 물량이 늘어난 전기차 감소로 1.6% 감소
 - 자동차부품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영향으로 현지조달로의 대체가 확대되면서 2.1%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지난해 11월 내수는 보조금 소진에 따른 전기차 판매 급감과 승용차 및 상용차 모두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1.7% 감소
 - 국산차 판매는 주요 지자체 보조금 소진 영향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가 위축된 가운데, 중견 3사의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5.2% 감소
 - 수입차 판매는 실적 부진 만회를 위한 프로모션 강화와 테슬라 및 BYD 등 가격경쟁력이 높은 전기차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18.2%의 큰 폭 증가
- 지난해 11월 생산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고 물량 조정과 전년동월 판매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중견 3사 모두 부진하면서 전년동월비 3.6% 감소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0.4	-2.0	0.6	-0.7	7.6	11.0	-13.4	-0.2	-
	생산(전기비)	-	-	4.1	-3.0	1.0	-18.3	8.9	-3.6	-
	출하	10.8	-2.0	0.3	-0.2	6.8	12.8	-13.8	0.9	-
	재고	9.7	4.9	8.8	10.4	12.0	12.0	8.7	4.4	-
	가동률	3.1	-5.9	-1.5	-3.3	6.7	9.4	-14.0	-1.0	-
	내수판매동향	2.9	-5.7	3.7	4.1	10.1	20.8	-12.8	-1.7	-
교역 동향	수출	21.2	-0.5	-3.1	-1.9	7.5	14.2	-12.5	7.8	-1.7
	수입	2.9	-9.4	-5.9	3.5	15.9	24.7	-14.3	12.9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차등록자료".

주: 1)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2) 조선

□ 지난해 11월 생산과 출하 증가 지속

- 지난해 11월 생산은 가동률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30.5%의 높은 증가율 지속
 - 생산 확대에 따라 실질 건조량 증가가 동반되며 출하도 전년동월비 19.4% 증가하였고 가동률도 55.7%로 상승하며 견조한 생산 흐름 유지
 - 전월비로는 10.2% 감소하며 생산 강도가 일시적으로 완화
 - 클락슨리서치(CGT) 기준 지난해 11월 누적 건조량은 1,118만 CGT로 전년동기비 6.6% 증가
 - * 클락슨 건조량(한국, 11월 누적, 백만 CGT): (2024년) 10.48 → (2025년) 11.18
- 지난해 12월 수출은 연평균을 상회하는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였으나, 전년동월 호조에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3	17.0	34.6	41.7	30.9	55.6	37.5	30.5	-
	생산(전기비)	-		14.6	9.2	1.0	19.3	8.6	-10.2	-
	출하	-5.4	17.5	24.4	28.4	20.5	43.2	26.0	19.4	-
	가동률	-3.1	8.6	28.7	39.6	50.7	87.8	64.1	55.7	-
교역 동향	수출	19.9	17.6	13.7	25.5	31.9	21.9	131.1	-26.4	-2.0
	수입	-21.1	60.4	34.1	51.3	-10.6	42.0	38.9	123.2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2.0% 감소

- 2022년 이후 선가 상승 국면에서 수주한 LNG 운반선 등 고선가 선박 인도가 지속된 영향으로, 수출 금액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
- 글로벌 해운 운임은 공급과잉 및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로 인해 선종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발주 심리가 위축되며 12월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184.7을 기록해 전년동월비(189.2) 소폭 하락
 - * 클락슨 신조선가지수(12월): (2021년) 153.6 → (2024년) 189.2 → (2025년) 184.7
 - * 벌크선 운임지수(BDI): (11월 7일) 2,104 → (12월 5일) 2,727
 -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SCFI): (11월 7일) 1,495.1 → (12월 5일) 1,114.9
- 지난해 11월 수입은 중국발 선박이 대규모로 유입되며 전년동월비 123.2% 증가
 - 특히, 선박이 170% 급증하며 전체 수입 확대를 주도하였는데, 중국 및 라이베리아로부터의 화물선과 탱커가 대규모로 유입된 영향
 - 선박뿐만 아니라 주요 기자재인 선박용 엔진 및 부품도 각각 12.6%, 51.4% 증가
- 글로벌 신조선장은 발주 위축이 본격화했으나, 우리나라는 고부가 선종 중심으로 점유율을 방어

- 클락슨리서치 기준 지난해 11월 세계 누적 수주량은 4,499만 CGT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비 37.1% 감소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동 기간 4.9% 감소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선방

(3) 일반기계

□ 지난해 11월 생산, 수출과 내수 감소 영향으로 감소 지속

- 지난해 11월 생산은 내수와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3.6% 감소
 - 내수출하와 설비투자는 각각 4.4% 및 2.6% 감소한 반면, 기계수주는 16.9% 증가
 - * 일반기계 내수출하증가율(전년동월비, %): (2025년 9월) -3.6 → (10월) -19.8 → (11월) -4.4
 - * 일반기계 설비투자증가율(전년동월비, %): (2025년 9월) -3.0 → (10월) -12.3 → (11월) -2.6
 - * 국내기계 수주증가율(전년동월비, %): (2025년 9월) 22.3 → (10월) -16.1 → (11월) 16.9
 - 재고율(재고/출하)은 출하지수(2.3%, 전월비)가 상승하고 재고지수(-2.9%, 전월비)가 감소하며 전월비 10.7%포인트 하락한 114.1%를 기록하였고, 제조업 재고율(104.9%) 대비 9.2%포인트 높은 수준
 - * 재고율(%): (2025년 9월) 131.5 → (10월) 124.8 → (11월) 114.1
 - 가동률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1.2% 증가
- 지난해 12월 수출은 미국 관세 및 중국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2.0% 감소
 - 대미국은 제조업 수요 위축으로 감소세(-16.9%) 지속
 - 대중국은 부동산 시장 위축 영향으로 감소(-4.6%) 전환
 - 대아세안은 설비 및 인프라 투자 영향으로 증가세(16.7%) 지속
 - 대중남미는 인프라 투자 확대 영향으로 증가세(6.3%) 지속
 - 대인도는 기계류의 현지 생산능력 확대 영향으로 감소(-21.0%) 전환
 - 대중동은 기가 프로젝트 추진 영향으로 증가세(50.8%) 기록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7.3	-1.5	-1.8	0.0	2.8	2.8	-9.9	-3.6	-
	생산(전기비)	-	-	-5.7	-0.6	1.4	-7.2	7.0	-0.5	-
	출하	-5.8	-1.4	-1.3	0.0	2.5	2.6	-8.5	2.3	-
	재고	-11.9	-5.7	-5.6	-7.5	2.4	2.4	1.3	-2.9	-
	가동률	-1.8	-7.1	-3.3	1.5	6.7	18.1	-6.3	1.2	-
교역 동향	수출	4.6	-4.2	-12.4	-6.4	-7.1	10.4	-16.0	-4.1	-2.0
	수입	-2.8	0.4	0.9	6.5	9.4	16.0	-3.3	11.7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 12월 주요국 수출액(억 달러) 및 증가율(전년동월비): 미국(8.5, -16.9%), 중국(4.8, -4.6%), 아세안(4.8, 16.7%), 중남미(2.8, 6.3%), 인도(1.7, -21.0%), 중동(2.6, 50.8%)

- 지난해 11월 수입은 설비투자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1.7% 증가
 - 주요 품목별로는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164.1%), 식품가공포장기계(138.2%), 건설광산기계(38.5%) 등이 증가한 반면, 섬유 및 화학기계(-12.1%), 금속공작기계(-9.1%),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2.7%) 등이 감소

(4) 철강

- 지난해 11월 생산, 전월에 이어 위축 지속, 12월 수출, 단가 약세 및 수요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 지난해 11월 생산은 건설경기 침체 및 동절기 진입에 따른 내수 부진과 미국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물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7.7% 감소

- 품목별로는 봉형강류가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로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열연 및 후판이 내수 부진과 포스코 및 현대제철의 공장 대보수 영향으로 감소
 - *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철강재 계(-10.0%), 봉형강류(-3.7%), H형강(-3.4%), 철근(-0.2%), 선재(-42.9%), 판재류(-10.0%), 열연강판(-15.1%), 중후판(-0.9%), 냉연강판(-18.3%), 용융아연도강판(3.8%), 컬러강판(-5.4%), STS핫코일(-22.9%), STS냉연강판(-23.9%), 전기강판(-10.9%), 강관(-8.2%)
-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출하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 철강 기업들의 감산 영향으로 재고지수는 하락 전환
- 지난해 12월 수출은 대미 수출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가 약세 및 주요국의 수요 부진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0.7% 감소
 - 대세계 평균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비 3.4% 하락한 1,026달러/톤을 나타냄.
 - 단가 약세 및 수요 부진 영향으로 아세안, EU, 중남미 등 대부분 지역으로 감소한 반면, 대미국은 10월부터 이어진 강관제품 수출물량 확대 영향으로 증가 전환
 -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아세안(-14.5%), 미국(1.4%), EU(-14.8%), 중남미(-8.1%), 일본(-18.8%), 인도(-11.6%)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5	-2.9	-8.0	0.5	0.2	4.9	-8.3	-7.7	-
	생산(전기비)	-	-	-5.8	3.0	0.5	3.8	-5.2	-1.6	-
	출하	2.1	-3.6	-4.3	0.0	-1.4	1.8	-12.5	-8.5	-
	재고	8.1	9.0	-4.1	-1.6	-2.8	-2.8	2.2	-2.1	-
	가동률	2.1	-2.7	-8.4	-0.3	-0.5	4.1	-9.1	-8.2	-
교역 동향	수출	-8.5	-5.4	-6.9	-5.2	-7.6	-4.3	-21.6	-15.9	-10.7
	수입	-9.6	-6.4	-12.6	-14.3	-3.3	4.8	-18.0	-23.5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 지난해 11월 수입은 내수 부진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 축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23.5% 감소
 - 11월 철강재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1,073.8달러로 전년 동월(1,113.8달러/톤)에 비해 1.1% 하락, 수입물량은 전월에 이어 20.7%의 큰 폭 감소
 - 국가별로는 주요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영향으로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 전월에 이어 감소세 지속, 인도네시아, 인도 및 대만으로부터는 증가
 - 품목별로는 중국·일본산 반덤핑 잠정관세가 부과된 열연강판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조선용 중국산 후판은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량이 증가로 전환되면서 7.0% 증가
 - * 주요 지역별 수입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국(-32.2%), 일본(-25.2%), 인도네시아(85.9%), 인도(22.4%), 베트남(-13.6%), 대만(7.3%), 미국(-31.5%), 말레이시아(-29.6%)
 - * 주요 품목별 수입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열연강판(-37.5%), 중후판(7.0%), 선재(17.8%), 아연도강판(-44.5%), 합금철(-10.0%), 냉연강판(48.5%), 봉강(-2.6%), 철강관(-6.5%), H형강(-68.9%), 철근(-69.0%), 전기강판(-9.2%)

(5) 정유

- 지난해 12월 수출, 단가 하락에도 물량 확대로 6.8% 증가
- 지난해 11월 생산은 국내 정유사의 정기보수로 인해 전년동월비 0.1% 증가에 그침.
 - 내수는 항공유와 LPG를 제외한 전반적 석유제품의 소비 위축으로 4.6% 감소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LPG(8.0%), 병커C유(2.9%), 항공유(1.5%), 윤활유(-3.4%), 휘발유(-4.0%), 나프타(-6.8%), 아스팔트(-7.7%), 경유(-11.7%)
 - 수출물량은 수출 비중이 큰 휘발유, 경유, 윤활유 및 항공유 등 운송용 석유제품의 전반적 감소로 10.4% 감소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벙커C유(131.8%), 아스팔트(23.0%), 나프타(0.8%), 항공유(-3.0%), 윤활유(-10.4%), 경유(-14.3%), 휘발유(-14.8%)
-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월 국내 정기보수로 인해 이월물량 등이 크게 확대되며 전년동월비 약 2억 7,000만 달러 증가
 - 수출단가는 국제유가가 15.2%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제마진 강세 지속으로 휘발유는 6.8%, 경유는 7.3% 하락에 그침.
 - * 국제유가(두바이유 달러/배럴, 상승률): (2024년 12월) 73.2 → (2025년 12월) 62.1(-15.2%)
 - *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달러/배럴, 상승률): (2024년 12월) 81.4/88.9 → (2025년 12월) 75.9/82.4(-6.8%/-7.3%)
 - *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4년 12월) 39.6 → (2025년 12월) 42.3(6.8%)
 - 지역별로는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서 미국 및 중국으로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일본 및 아세안 국가로 감소세를 지속
 - * 지역별 수출액 증가율(%): 미국(13.8), 중국(10.9), 아세안(-13.2), 일본(-35.2)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0.2	1.8	-6.3	-1.1	2.0	2.3	1.4	0.1	-
	생산(전기비)	-	-	-3.5	5.1	2.2	4.8	-6.1	1.5	-
	출하	1.4	4.2	-8.2	-3.2	2.1	3.1	-4.5	-3.3	-
	재고	5.0	-5.8	-7.6	-3.1	-18.7	-18.7	-8.1	-3.5	-
	가동률	0.1	1.8	-6.4	-1.0	2.3	2.5	1.4	-0.1	-
	내수판매동향	-2.2	3.5	-4.9	-4.3	2.7	1.1	-6.3	-4.6	-
교역 동향	수출	-17.3	-3.2	-23.5	-12.7	-2.4	4.5	13.0	-10.2	6.8
	수입	-13.3	8.2	-5.3	-22.4	-12.4	-10.1	-12.9	-17.3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 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6) 섬유

□ 지난해 11월 수출과 생산, 연말 수요 확대로 부진 완화

- 지난해 10월의 급격한 생산 위축이 11월 들어 연말 쇼핑 시즌 대비 내수 및 수출 감소세 완화에 힘입어 업스트림(원사) 및 미들스트림(직물·염색)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
 - 화학섬유는 패딩, 기능성 외투 등 동절기 의류 제작을 위한 화섬 수요가 뒤늦게 반영되며 낙폭을 줄였으며, 방적사는 수요산업인 직물·편물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감소 완화
 - 직물은 12월 수출 감소세 둔화에 대한 선제적 생산 활동과 의류 내수 브랜드들의 SS 시즌 준비 물량 확대, 편물은 니트류 등 겨울철 주력 내수 상품의 오더 영향으로 개선
 - 봉제의복은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수요 확대로 증가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전년 동월 수준의 보합세로 전환됨에 따라 후방 산업에 대한 수요 견인력이 약화
 - * 화학섬유(전년동월비): (9월) 0.2% → (10월) -8.9% → (11월) -2.0%
 - * 방적사(전년동월비): (9월) -10.1% → (10월) -24.5% → (11월) -7.1%
 - * 직물(전년동월비): (9월) 17.7% → (10월) -2.0% → (11월) 2.4%
 - * 편물(전년동월비): (9월) -2.4% → (10월) -16.3% → (11월) -0.9%
 - * 염색가공(전년동월비): (9월) 14.2% → (10월) -15.9% → (11월) -2.7%
 - * 기타 섬유제품(전년동월비): (9월) 4.1% → (10월) -15.1% → (11월) -8.2%
 - * 봉제의복(전년동월비): (9월) 23.4% → (10월) 9.2% → (11월) -0.2%
 - 국내 의류 소매판매는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온라인 판매가 큰 폭 증가
 - * 의류 소매판매액 증가율(전년동월비): (9월) 2.5% → (10월) 5.0% → (11월) 3.0%
 - * 의류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증가율(전년동월비): (9월) 12.2% → (10월) 1.9% → (11월) 6.4%
- 지난해 12월 수출은 연말 쇼핑시즌 도래에 따른 소비 증가, 고환율 영향으로 보합세 유지
 - 대미국은 7.0% 증가하였으며, 연말 쇼핑 시즌 도래에 따른 수요 증가 및 경쟁국 대비 상대적 관세 우위에 따른 반사이익, 원화 약세 지속에 따른 가격경쟁력 보전 등이 견인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2.8	-6.3	-3.9	-3.2	3.4	15.3	-2.8	-1.6	-
	생산(전기비)	-	-	-2.0	-3.5	0.4	4.1	2.7	0.5	-
	출하	-11.1	-7.2	-4.2	-4.1	0.3	7.6	-9.3	0.2	-
	재고	-10.8	-4.8	-0.6	0.1	1.1	1.1	-4.0	-5.4	-
	가동률	-5.6	-2.1	-2.5	-9.0	-2.1	6.1	-16.3	-8.2	-
교역 동향	수출	-11.3	-4.1	-8.1	-8.3	-3.6	7.1	-16.9	-11.1	-0.9
	수입	-5.2	2.0	-0.3	-0.6	-1.4	4.6	-11.2	1.7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 대중국은 중국 내 최대 쇼핑 시즌(광군제)에 따른 일시적 수요 급증과 한파로 인한 방한 의류 수요 확대 등으로 9.1% 증가 지속

* 섬유류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2024년 12월) 8.9(-4.4%) → (2025년 12월) 8.8(-0.9%)

* 12월 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아세안) 2.3(-0.5%), (미국) 1.0(7.0%), (중국) 1.2(9.1%)

(7) 가전

□ 지난해 11월 생산과 수출, 국내외 수요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 지난해 11월 생산은 수출 감소가 완화되었으나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비 5.8% 감소

* 11월 내수 증가율(불변지수, 전년동월비): (2023년) -16.7% → (2024년) -6.6% → (2025년) -5.3%

- 영상음향기기는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나 생활가전과 조명기기 판매 부진으로 전체 가전의 생산, 출하, 재고가 모두 감소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0.4	3.4	0.3	-6.0	2.3	8.1	-20.7	-5.8	-
	생산(전기비)	-	-	0.2	-7.5	4.4	-10.2	-7.8	10.2	-
	출하	3.3	-4.6	-0.1	-3.6	1.0	8.1	-12.5	-3.6	-
	재고	-7.9	7.7	8.6	1.8	3.9	6.7	-6.7	-5.1	-
	가동률	-1.8	4.4	-0.2	-8.2	3.1	9.2	-15.8	-1.7	-
교역 동향	수출	-1.0	0.4	-9.7	-11.6	-5.1	12.0	-19.8	-2.5	-1.4
	수입	-5.0	2.8	0.7	-2.4	2.6	8.1	-12.5	-2.4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주: 1)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 판매 부진이 지속되면서 가동률 하락이 지속되었으나, 수출 감소폭이 완화되어 가동률 하락폭은 완화(전년동월비 1.7% 하락)
-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 감소
 -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 대형냉장고, 대형세탁기 수출 부진으로 전체 가전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아세안, EU 등 미국 외 지역으로는 증가
 - * 12월 수출액 증가율(1~25일 기준, 전년동기비): (미국) -24.8%, (아세안) 34.1%, (EU) 18.0%
 - * 대미 대형냉장고, 대형세탁기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비 34.5%, 35.8% 감소(잠정치)
- 지난해 11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2.4% 감소
 -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부터 감소했으나 멕시코, 미국, 일본으로부터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입 감소폭이 완화
 - * 11월 수입액 증가율(전년동월비, %): (중국) 1.5, (베트남) -12.6, (태국) -7.9, (인도네시아) -15.8, (멕시코) 59.0, (미국) 28.7, (일본) 24.3

(8) 무선통신기기

□ 지난해 12월 수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비 24.7% 증가

- AI 인프라 투자로 인한 HBM 외 범용 D램 단가 반등으로 디바이스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 관세 등 불확실성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신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폴더블폰 및 플래그십 제품 판매가 호조
 - 지역별 수출은 대미국이 전년동기비 142.8% 증가하고, 대아세안이 5.3% 증가했으며, 대중국이 1.3% 증가
 -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주요 전망기관은 올해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여러 요인(금리·유가국제분쟁)에 따라 향후 지속적 상·하향 조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전망
 - * 카운터포인트(2025. 12. 16)¹⁾는 올해 전년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을 2.1%(기존 2.6%, 메모리 단가 상승 반영) 수준으로 제시
 - * 가트너(2025. 12. 17)²⁾는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의 전년비 증가율을 0%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7~2028년은 3% 수준 제시
 - * IDC(2025. 12. 2)³⁾는 올해 출하량 증가율을 기존 1.2% 수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최근 -0.9%로 하향 조정
 - 다만, 출하량 전망과 달리 메모리 가격이 반영(Pass-Through)되며 세계 스마트폰 매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5,8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
-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애플 및 삼성전자 등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전년비 30%가량 증가 기대

1) Counterpoint(2025), "2026 Smartphone Shipment Forecast Revised Down as Memory Shortage Drives BoM Costs Up", Dec. 16

2) Gartner(2025), "Forecast: PCs, Tablets, and Mobile Phones, Worldwide, 2023-2029, 4Q25", Dec. 17.

3) IDC(2025), "Worldwide Smartphone Market to Grow 1.5% in 2025, Boosted by Record Apple Shipments in 2025 of 247.4 Million Units and 6.1% YoY Growth, According to IDC, Dec. 2.

- IDC(2025. 12. 9)⁴⁾는 사상 최초의 애플 폴더블 및 삼성전자 트라이폴드 출시로 인해 기존 폴더블폰 시장 매출액 증가율을 6%에서 30%로 상향 조정
 - * 가트너(2025. 12. 2)는 전년비 폴더블폰 출하량 성장률을 14.3%로 제시하였으며, 총매출액은 15.5%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3.5% 증가하고 가동률은 19.0% 상승하였으나, 출하는 13.6% 감소하고 재고가 6.1% 증가
 - 상반기는 관세 회피 목적의 선제적 수출이 생산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3분기부터는 생산이 둔화
 - * 다만 4분기에는 계절 특수(블랙프라이데이·크리스마스)와 2025년 4분기 및 2026년 1분기 신제품 출시 준비 과정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 국내에서 12월 출시된 트라이폴드 제품은 1월부터 글로벌 출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갤럭시 S26 출시는 2월 말경으로 예상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5	5.0	10.7	8.5	-12.1	-10.1	-14.1	3.5	-
	생산(전기비)	-	-	-4.0	-7.4	9.9	-8.1	-1.0	18.3	-
	출하	-1.5	5.0	7.5	5.3	-11.1	-17.6	1.4	-13.6	-
	재고	18.5	-18.7	-21.2	-10.4	1.8	-1.8	-20.9	6.1	-
	가동률	-9.1	9.4	23.6	18.6	-9.5	-5.3	-10.4	19.0	-
교역 동향	수출	-10.2	11.1	8.0	9.1	-12.7	-7.4	-10.9	1.6	24.7
	수입	-9.6	-4.6	-12.4	-0.5	17.4	25.8	-32.0	23.5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4) IDC(2025), “Worldwide Foldable Smartphone Market to Grow 30% in 2026, Boosted by the First Apple Foldable iPhone, According to IDC”, Dec. 9.

- 지난해 11월 수입은 애플 아이폰 17 제품군 수요 증가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23.5% 증가
 - 스마트폰이 69.3%의 큰 폭 증가하였고, 레이더 역시 49.2% 증가
 - * 반면에 스마트폰 부품은 8%, 안테나는 29.7%, 위성방송수신기는 45.8% 감소

(9) 반도체

□ 지난해 12월 수출, AI 투자 확산으로 급증

-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207억 7,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43.2% 증가, 역대 월간 실적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고 연간 반도체 수출 실적도 최고치 경신
 - 수출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난해 2월을 제외하고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3월 이후에는 두 자릿수의 대폭 증가세 유지
 -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의 월간 수출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12월에는 역대 월간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
 - * 지난해 1월부터 12월 사이에 월간 최고 수출 기록을 5번 경신
 - HBM 수출 증가와 범용 메모리반도체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출은 1,7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역대 최고 기록 경신
 - *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 확대에 따라 고부가 제품인 HBM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HBM 생산 확대에 따라 범용 메모리반도체 생산이 감소하여 범용 제품의 단가도 상승
- 지난해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1.5% 감소하였으나 전월비 7.5% 증가하여 점진적 회복이 예상되지만 공급 부족은 지속 가능
 -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생산과 가동률이 전년동기비 두 자릿수 감소하여 공급이 축소된 한편, 출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급 불안정이 발생
 - 2024년 이후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생산도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0	20.4	15.9	18.3	21.8	32.4	-2.4	-1.5	-
	생산(전기비)	-	-	4.4	4.0	3.7	19.7	-26.5	7.5	-
	출하	8.9	16.3	12.2	15.3	17.5	9.6	7.2	9.1	-
	재고	7.2	-31.0	-26.2	-25.5	-20.0	-20.4	-42.1	-42.5	-
	가동률	-10.2	12.1	8.5	6.6	3.0	10.0	-10.6	-13.1	-
교역 동향	수출	-23.7	43.9	6.0	16.2	26.6	21.9	25.2	38.6	43.2
	수입	-16.6	15.8	8.5	6.2	4.1	-1.5	-1.7	-3.3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데 이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생산 포트폴리오 변경(HBM 확대 및 범용 메모리반도체 축소)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

- 이에 따라 범용 메모리반도체 단가 상승이 지속

(10) 디스플레이

- 지난해 12월 수출, 전년동월비 0.8% 증가
- 지난해 12월 수출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회복과 패널단가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0.8% 증가
 - LCD는 노트북용 패널을 중심으로 수요 회복이 나타났음에도 TV용 패널 부진으로 1.8% 소폭 감소하며 18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
 - OLED는 애플 아이폰 판매 호조와 LTPO 플러스 도입 등으로 인한 패널 가격 상승으로 1.9% 소폭 증가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8.7	9.9	2.6	-8.5	8.7	11.3	-1.9	6.9	-
	생산(전기비)	-	-	1.3	-4.1	10.6	-0.5	-9.0	5.0	-
	출하	-17.8	4.7	-0.5	-13.8	5.4	6.3	-7.4	0.6	-
	재고	2.7	-2.8	-20.2	13.9	4.5	4.5	-5.6	-11.4	-
	가동률	-3.3	17.0	4.8	-8.3	12.7	16.0	1.3	9.1	-
교역 동향	수출	-12.1	0.9	-6.0	-21.5	-5.8	0.9	-8.7	-2.9	0.8
	수입	-4.9	6.8	-26.8	-10.0	-10.3	-3.0	-27.5	-12.7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주: 1)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 11월 수출이 감소했던 대아세안은 12월에 증가로 전환된 반면, 11월 수출 증가세를 보였던 대중국은 제품 생산 및 납품 일정 조정으로 인해 12월에는 감소로 전환
 - * 지역별 수출액(증가율): (중국) 2.9억 달러(-8.8%), (아세안) 8.6억 달러(8.5%), (중남미) 0.5억 달러(-45.1%)
- 지난해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6.9%로 증가하였으며, 전월비로는 5.0% 증가
 - 출하량 및 가동률의 동반 상승과 재고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산업활동 관련 지표 전반에서 점진적인 회복 신호가 관찰
 -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생산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어 산업 회복이 안정적인 추세 국면으로 진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지난해 수출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전방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이어지며 전년 대비 9.4% 감소
 - LCD는 프리미엄 TV 시장 부진으로 인하여 22.4%나 감소하였으며, OLED는 고부가 패널 비중 상승으로 인한 패널 단가 상승에도 판매량 축소로 인하여 4.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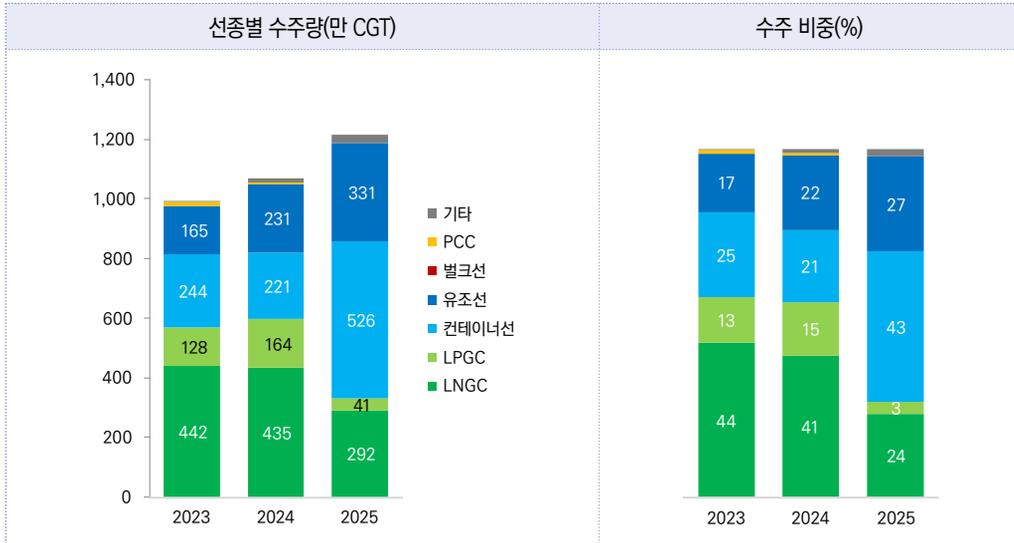
4

이슈 포커스

(1) 조선산업 수주 분석

- (선종별 수주) 2025년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1,217만 CGT를 수주했는데, 상황이 악화된 LNG운반선은 감소하고 컨테이너선이 증가
- 한국 수주량은 2023년 994만 CGT에서 2024년 1,070만 CGT, 2025년에는 1,217만 CGT로 지속 증가
 - 2025년 세계 조선산업 수주량(100GT 이상 선박 기준)은 2024년 7,811만 CGT에서 5,710만 CGT로 26.9% 감소했는데, 한국은 13.6% 증가
 - 중국은 3,551만 CGT로 전년 대비 45.9% 감소, 일본은 281만 CGT로 52.8% 감소한 데 비해 양호한 수주를 기록
 - 비록 중국은 수주가 감소했으나 절대적인 물량은 한국의 약 3배로 양적 우위를 지속
- 한국의 선종별 수주는 상황이 악화된 가스운반선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이 확대
 - 2023~2024년 한국이 수주한 물량 중 약 60%는 가스운반선(LNG, LPG 운반선)이었으나, 2025년에는 가스운반선 상황이 악화되면서 27%로 감소

한국의 선종별 수주량 및 선종별 수주 비중



자료: 클락슨리서치 WFR DB(접속일: 2026. 1. 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25년에는 시황이 좋았던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으로 수주물량을 채우면서 컨테이너선의 수주 비중은 43%, 유조선은 27%까지 증가
 - 한·중·일 주요 선종별 점유율에서 LNG운반선은 한국의 절대 우위, 컨테이너선, 유조선의 한국 점유율 확대
 - 2024년 한국 57%, 중국 43%였던 LNG운반선 점유율은 2025년 한국 78%(미국 필리조선 포함), 중국 21%로 한국 우위 확대
 - 2024년 각각 11%, 13%였던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의 한국 수주 점유율은 2025년 21%와 31%로 확대됐는데, 그럼에도 중국 점유율이 각각 76%, 54%로 높은 수준을 기록
- (한·중·일 해운·조선 발주·수주 분석) 최근 3년(2023~2025년) 한·중·일 조선사는 세계 발주의 90%를 수주, 해운사는 세계 발주의 33%를 차지
- 최근 3년 중국 조선산업의 수주점유율은 64.5%, 한국은 17.1%, 일본은 8.2%로 중국이 압도적인 물량을 점유

2023~2025년 한·중·일 해운-조선 발주-수주 현황

단위: 만 CGT

조선 국가	해운 국가				
	중국 해운	일본 해운	한국 해운	기타 해운	조선 수주 합계
중국 조선	3,894	593	262	7,602	12,351
일본 조선	21	659	16	872	1,568
한국 조선	118	370	268	2,526	3,282
기타 조선	6	82	78	1,789	1,955
해운 발주 합계	4,039	1,704	624	12,789	19,156

자료: 클락슨리서치 WFR DB(접속일: 2026. 1. 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해운 국가는 Owner Nationality 기준.

- 최근 3년 중국 해운산업은 세계 발주량의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8.9%, 한국은 3.3%로, 한국 해운산업의 발주 비중은 크지 않은 편
- 중국 해운사는 일부 선박을 제외하면 모두 자국에 발주하는 반면, 한국과 일본 해운사는 상당한 물량을 중국에 발주
 - 중국 해운사 발주량의 96.4%를 중국 조선사가 수주한 반면 일본 해운사 발주량의 38.7%만 일본 조선사가 수주
 - 일본 해운사 발주량의 34.8%를 중국 조선사가 수주했는데, 중국의 일본 합작 조선사가 다수 존재하고 중국 관련 해상물동량 관련 발주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
 - 한국 해운사는 42.9%를 한국에, 42.0%를 중국에 발주했는데, 벌크선이나 자동차운반선과 같은 경우 중국 조선사의 가격이 낮기 때문
- 일본 조선사와 중국 조선사는 수주의 30~40%를 자국 해운사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 8.2%에 불과하여 경쟁국에 비해 불리
 - 일본 조선사는 42.0%, 중국은 31.5%를 자국 해운사의 물량으로 수주하는 반면, 한국은 8.2%에 불과하여 내수 의존도가 낮은 편

한·중·일 해운사 발주 및 한·중·일 조선사 수주 비중

한·중·일 해운사의 발주국가 비중(%)				한·중·일 조선사의 수주국가 비중(%)			
조선 국가	해운 국가			조선 국가	해운 국가		
	중국 해운	일본 해운	한국 해운		중국 해운	일본 해운	한국 해운
중국 조선	96.4	34.8	42.0	중국 조선	31.5	4.8	2.1
일본 조선	0.5	38.7	2.6	일본 조선	1.3	42.0	1.0
한국 조선	2.9	21.7	42.9	한국 조선	3.6	11.3	8.2
한·중·일 발주 비중	99.9	95.2	87.5	세계 발주 비중	21.1	8.9	3.3

자료: 클락슨리서치 WFR DB(접속일: 2026. 1. 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해운 국가는 Owner Nationality 기준.

- 일본 해운사 발주량의 21.7%를 한국 조선사가 수주했는데, 일본 조선사가 건조하지 못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일본이 대응하기 어려운 선주 맞춤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
- 결과적으로 일본 해운사가 발주한 물량이 한국 조선사 수주의 11.3%를 차지하여 한국 해운사보다 더 중요한 고객 국가로 나타남.

이은창 | 경제안보·통상연구실 연구위원